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등 13개 기관, 농촌 폐플라스틱 수거 동참

이재기 기자 | 승인 2026.10.28 17:32

폐플라스틱 수거해 농촌 생활안전용품 제작·배부 추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청주문화제조창 내 '모두의제로쓰 마켓랩'에서 '순환가치(같이)' 농촌 나눔 프로젝트' 성과보고회가 28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13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 기관·단체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농촌 생활안전 및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협력 사업이다.

환경보호와 농촌 상생을 목표로 여러 기관과 농업인단체가 힘을 모았다.

참여기관들은 폐플라스틱 수거와 기부금 마련에 동참했고, 이를 활용해 충북 농촌지역에 낙상방지 안전바 200개와 순환 명패 80개를 제작해 설치·배부했다.

보고회에서는 프로젝트 추진 경과가 공유됐으며, 참여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은 인증패 전달과 자원 순환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재활용 제품 전시공간에서 폐자원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순환 명패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김경한 본부장은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실천이 여러 기관과 농업인의 참여로 농촌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순환과 농촌 상생을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기 기자 news3090@hanmail.net